

목 차

제1부 중국(中國)의 한시(漢詩)-唐詩

- 시와 술[酒]
- 시와 사랑
- 민중(民衆)의 삶과 시
- 변새(邊塞)의 풍광(風光)
- 산수자연(山水自然)의 미(美)

제2부 우리나라의 시화(詩話)와 한시(漢詩)

- <어우야담(於于野談)>과 시 이야기
- <송계만록(松溪漫錄)>과 시 이야기
- <추재기이(秋齋紀異)>와 시 이야기

제1부 중국(中國)의 한시(漢詩) - 唐詩

○ 시와 술[酒]

■ 李白(701 ~ 762)

字는 太白이며, 號는 靑蓮居士(청련거사)이다. 그의 본적은 농서성(隴西省)의 成紀(지금의 甘肅省 天水市 부근)이며, 부친은 隋나라 말엽, 지금의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의 토크마크 부근(唐代에는 安西 都護府에 속해 있었음)에 寓居하였는데, 이백은 그곳에서 출생하였다.

5세에 아버지를 따라 蜀郡(촉군) 綿州(면주) 彰明縣(창명현) 靑蓮鄉(지금의 四川省 綿陽縣)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어려서는 蜀땅에서 학문을 배우며 자유롭게 노닐었다. 25세에는 장대한 뜻을 품고 촉 땅을 떠나 安陸(지금의 湖北省 安陸縣), 任城(지금의 山東省 濟寧縣) 등을 중심으로 吳越.齊魯.幽燕을 유람하며 산천의 빼어난 風光을 두루 감상하고 당시의 사회적 情況들을 이해하고 체득하였다.

당 현종 天寶 초년에 吳筠(오균)을 따라 長安으로 들어갔다. 당시 하지장(賀知章)은 그의 시를 읽고 마치 天上의 적선(謫仙)과 같다고 감탄하며 현종에게 그를 천거하였다. 이로 인해 이백은 翰林에 봉해졌다. 관직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는 조정의 부패나 통치자들의 荒淫을 한층 더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환관들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장안을 떠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다시 새로운 漫遊(만유)를 시작하게 된다. 安(安祿山)·史(史思明)의 난이 일어나 永王 李璘(이린)이 군사들을 통솔하여 九江을 경유하자, 국가에 대한 충정을 품고 이린의 막부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이린과 그의 병사들이 패전하자, 그 또한 이로 인해 역적으로 몰려 하옥되고, 이듬해 夜郎으로 유배를 갔으나, 도중에 사면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백이 생존했던 시기는 개원(開元), 천보(天寶) 연간에 해당한다. 이 당시는 사회가 안정되었으며, 경제와 문화의 수준도 매우 번성하였으며 국력 또한 강한 때여서, 그는 이를 토대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하지만 당 현종과 위정자들의 부패와 모순을 경험하고,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갑자기 쇠락하게 되는 국면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 그는 詩歌를 창작하면서 이러한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세태를 작품 속에 반영하게 되었다. 때문에 그의 작품 가운데는 唐代의 화려한 문물이 담겨져 있는 동시에, 그의 시대정신 또한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채석강에서 취중에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생을 마쳤다는 일화가 있다.

月下獨酌(월하독작)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李白

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2)

月既不解飲
影徒隨我身

暫伴月將影3)
行樂須及春4)

我歌月徘徊5)
我舞影零亂6)

醒時同交歡7)
醉後各分散

永結無情遊8)
相期邈雲漢9)

【주석】

- 1) 成三人: 달.그림자.자신이 세 사람을 이룬다는 뜻.
- 2) 將影: 그림자를 이끌다. ‘將’은 ‘거느리다’라는 뜻.
- 3) 行樂須及春: 행락은 봄철인 듯해야 한다는 뜻. 행락에는 시절에 맞춰야 한다는 뜻을 차용한 것.
- 4) 徘徊: 머무르며 앞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
- 5) 零亂: ‘淩亂’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바닥에서 어지럽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묘사한 것임.
- 6) 醒時: 술에 취하기 전. ‘醒’자가 ‘술 깼 성’이라서, 흔히 ‘술이 깨어 있을 때’라고 번역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술에 취하였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7) 無情: 喜怒哀樂의 감정과 사심이 없는 정. 세속적 인간의 감정이 없는 산수나 鳥獸草木 등의 경물을 표현할 때 쓰인다.
- 8) 雲漢: 은하수.

【감상과 분석】

이 시는 총 4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그가 翰林職에 제수되기 전 天寶3년(744) 봄에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작품은 홀로 술을 마시는 고독감과 취흥에서 느끼는 자득의 기쁨이 참신한 상상력에 의하여 절묘하게 교착되어있다. 자신의 그림자를 친구로 대치시키는 발상은 陶淵明의 <雜詩> 중 “잔을 들어 외로운 그림자에게 권한다.”[揮杯勸孤影]와 같은 시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달과 그림자와 함께 三人이 되어 술을 마신다는 詩想은 후대 시인들이 많이 인용하였다.

■ 중국 문학에 있어 술[酒]이라는 존재

다음은 중국의 고전인 사마천(司馬遷)의 『史記』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하늘에 제사지내고 사당에 제사지내는 데에 술이 아니면 (신령이) 흠향(歆饗)하지 않을 것이고 임금과 신하, 친구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 의리가 두터워지지 않을 것이며,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하는 데에도 술이 아니면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술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술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신(神)을 맺어주는 역할도 해왔다. 술 없이 제사지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한서(漢書)』에도 “술은 백약(百藥)의 으뜸이고 아름다운 모임의 좋은 짝이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술이 병을 다스리는 최고의 약이 된다는 말이다. 술은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하면서 인간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 인간의 가장 오래된 벗인 셈이다. 앞서 살펴본 「월하독작」의 제2수이다. 이 백(李白)의 다음과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前略)

已聞清比聖	들으니 청주(淸酒)는 성인(聖人)에 비유되고
復道濁如賢	탁주는 현인(賢人)에 비유된다 말했겠다

賢聖旣已飲	성인과 현인을 나 이미 마셨으니
何必求神仙	구태여 신선을 구한 필요 있으리오

三杯通大道	술 석잔 마시니 대도(大道)에 통하고
一斗合自然	한 말 술 마시니 자연과 합하도다

但得醉中趣	취중(醉中)의 흥취를 얻으면 그만이지
勿爲醒者傳	술 마시지 않는 자에겐 말하지 말라

■ 杜甫(712~770)

詩聖으로 불리는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컫는다. 또 ‘시로 쓴 역사’라는 뜻으로 ‘詩史’라 불리기도 하는데, 開元 연간의 盛世와 수많은 전란을 모두 겪었던 만큼 급변하는 사회현실, 불안정한 정세, 백성들의 고통 등이 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두보의 자는 子美이며, 본적은 호북성(湖北省) 양양(襄陽)이지만,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에서 태어났다. 35세 되던 해인 天寶 5년(746) 장안으로 돌아와, 수년 동안 벼슬을 구하며 장안 부근의 소릉(少陵)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두보를 ‘杜少陵’이라 칭하는 것은 이 지명에서 연원한다. 천보 14년(755) 雲南 하서현위(河西縣尉)에 제수(除授)되었지만 사양하여 右衛率府의 兵曹參軍에 임명되었다. 이 해에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 가족을 부주(鄜州)에 옮겨 놓고 숙종을 호종하러 가던 중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장안에 연금된 지 1년 만에 탈출, 새로 즉위한 황제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가 배알한 공으로 左拾遺가 되었다. 그러나 宰相 房琯의 무죄를 상소하다 華州司功參軍으로 좌천되었다. 乾元 2년(759) 48세 때 關中과 三輔 지역에 대기근이 들자, 관직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秦州로 향하였다. 成都에 정착하여 浣花溪에 草堂을 짓고 한동안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그 후 段子璋과 徐知道의 반란, 토번의 침입 등으로 蜀 지방이 시끄러워지자 劍南東川節度使 嚴武의 參謀와 檢校工部員外郎을 지냈다. 이 때문에 ‘杜工部’라고 불리게 되었다. 永泰 元年(765) 嚴武가 세상을 떠나자 성도를 떠나 雲安에 잠시 머물다 다음해 기주(夔州)로 옮겨간다. 大曆 3년(768) 협곡을 나와 長江일대를 배로 떠돌다가, 동정호(洞庭湖)에서 59세를 일기로 病死하였다.

飲中八仙歌(음중팔선가)

술 마시는 여덟 명의 신선을 노래함

杜甫

知章1)騎馬似乘船2)

眼花落井水底眠(賀知章)

【주석】

- 1) 賀知章: 659~744. 字는 季眞이며 號는 사명광객(四明狂客)·비서외감(秘書外監)이다. 절강성 會稽지역 永興 사람으로, 당 현종에게 이백을 천거한 시인이다. 당대의 초당~성당 사이의 걸출한 시인이자 道家에 심취하고, 愛酒家로 알려져 있다.
- 2) 騎馬似乘船: 말을 타면 배 타듯이 하였다는 것은 취한 가운데 自得한 모습이다. 천보 3년에 그는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고, 배를 수레삼고 노를 말삼아 지내겠다고 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말 타면 배 탄듯하다’라 표현한 것이다.
- 3) 眼花: 눈앞이 아물거리는 현상이다.

汝陽1)三斗始朝天

道逢麴車口流涎

恨不移封向酒泉2)(汝陽王 李璿)

- 1) 汝陽: 汝陽王 李璿. ?~750(추정) 당 현종의 조카이다. 술을 매우 좋아한 시인이다. 하지장과는 매번 의기투합하여 詩酒의 사귀를 가졌다고 한다.
- 2) 酒泉: 『漢書』「地理志」에 의하면, 한무제 때 酒泉郡을 설치하였다고 전한다. 주천군의 성 아래에는 ‘金泉’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물의 맛이 달고 마치 술과 같다하여 ‘주천’이라 지칭한 것이다. ‘주천군’이라는 지명도 여기서 유래한다. 한무제가 郭弘이라는 인물에게 封爵하려하며 ‘어느 곳이 좋겠는가’라 묻자, 술을 좋아하던 곽홍이 ‘주천군’에 봉해달라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시에서 여양왕 이진이 ‘주천 향해 봉해지지 못함을 한스러워한다’라 한 것은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左相1)日興費萬錢2)

飲如長鯨吸百川

銜杯樂聖稱避賢3) (李適之)

1) 좌상: 李適之. ?~746. 천보 원년에 좌승상에 올랐으며, 당시 李林甫와 정권을 다투다가 실각하고 만다. 그는 빈객들과 더불어 술마시기를 매우 좋아하여 낮에는 공무를 보다가 밤에는 연회에 나아가 술을 먹었다고 전한다.

2) 費萬錢: 만전을 허비했다는 것은 그가 많은 돈을 飲酒에 썼다는 말이다. 唐代의 酒價는 약 한말[斗]에 삼백전 이었다고 한다.

3) 樂聖稱避賢: 聖은 聖人으로 여기서는 淸酒를 비유하고, 賢은 賢人으로 濁酒를 비유한다. 한말(漢末)에 기근이 심해서 조조(曹操)가 금주령을 내리자 酒客들이 술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하여 淸酒를 聖人이라 하고 濁酒를 賢人이라고 불렀다. (『三國志』 권27)

宗之1)瀟灑2)美少年

舉觴白眼望青天

皎如玉樹臨風前3) (崔宗之)

1) 宗之: 최종지이다. 생몰년 미상. 『杜詩詳註』를 살펴보면 그는 상당히 미려하고 비범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거만하고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舊唐書』「李白傳」에 의하면, 당시 侍御史였던 최종지가 金陵으로 유배를 오자, 금릉에 있던 이백과 뜻이 맞아 詩酒를 즐겼다고 한다.

2) 소쇄(瀟灑): 깨끗하고 맑다는 뜻이다.

3) 皎如玉樹臨風前: 옥나무가 바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의 술에 취한 날씬한 자태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옥나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술에 취한 모습을 운치있게 형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蘇晉1)長齋繡佛前
醉中徃徃愛逃禪(蘇晉)

1) 蘇晉: ?~734(추정).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新唐書』에 의하면, 소진은 玄宗이 재위하던 시절 호부낭중(戶部郎中)을 지낸바 있으며, 중서사인(中書舍人) 등도 역임하였다. 그는 평생 불교를 신봉하여 자수(刺繡)한 미륵불 한 폭을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일화가 있다.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1)
自稱臣是酒中仙(李白)

1) 天子呼來不上船: 이백이 한림학사 재직 시절, 당 현종과 양귀비가 흥경궁(興慶宮) 침향정(沈香亭)에서 연회를 베푼 적이 있었다. 꽃을 감상하다 악부의 새로운 가사를 짓고자 하여 이백을 찾자, 당시의 환관 高力士는 사람을 보내 이백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백은 長安의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였다. 부축하여 그를 현종이 탄 배에 승선시키려 하였지만, 몸을 가누기 어려워 배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한다.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고사에서 연원한 것이다.

張旭1)三杯草聖2)傳
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煙3)(張旭)

1) 張旭: 생몰년 미상. 字는 伯高이며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 사람이다. 『舊唐書』에 전하기를, 초서에 능하고 술을 좋아하여 취하면 붓대를 잡고 휘둘러 신묘한 작품을 써내려갔다고 한다. 또한 하지장과도 친분이 있어 함께 詩酒를 즐긴 바 있다.

- 2) 草聖: 漢代의 張芝는 초서의 대가로 유명하였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草聖’이라 칭했다. 옛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한 일에 정통한 자를 일러 ‘聖’이라 부른다.
- 3) 脱帽~ 雲煙: 이 두 구절은 장욱이 술에 취한 채 초서를 쓰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구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술에 취하면 머리를 풀어 먹[墨]을 적신 후에 일필휘지 하였다고 한다.

焦遂1) 五斗方卓然

高談雄辯驚四筵(焦遂)

- 1) 焦遂: 생물년 미상. 평생 布衣로 지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말을 더욱 조리 있게 하였으며, 언변에 능했다고 전해진다.

○ 시와 사랑

■ 왕창령(王昌齡)(689? ~ 756)

강녕인(江寧人)으로 字는 少伯이다. 개원 15년(727), 진사에 급제하여 비서성 교서랑(秘書省校書郎)이 되었고, 개원 22년(734) 博學宏詞의 시험에 합격하여 汜水尉가 되었다가 嶺南으로 귀양을 갔다. 개원 28년(740)에는 강녕승(江寧丞)에 부임하였다가 용표위(龍標尉)로 좌천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왕강령, 왕용표라고 칭해진다.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호주(濠洲)를 지나다가 刺史 여구효(閻丘曉)에게 살해되었다.

시로 명성이 높아 ‘詩歌天子’라는 칭송을 들었으며, 칠언절구에 있어서는 이백과 더불어 쌍벽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백이나 맹호연 등과 모두 교분이 있었다.

여인의 사랑의 비탄을 노래한 <長信秋> <閨怨>과 변경의 풍물과 병사의 향수를 노래한 <出塞>, <從軍記>가 유명하다.

원래 문집이 있었으나 망실되었고, 명대에 《王昌齡全集》이 편집되었으며, 그의 저술로 알려진 시론서 《詩格》과 《詩中密旨》 각 1권이 전한다.

閨怨(규원)

王昌齡

閨中少婦1)不知愁
春日凝妝2)上翠樓3)
忽見陌頭楊柳色
悔教夫婿覓封侯4)

【주석】

- 1) 少婦: 신혼의 젊은 아내이다.
- 2) 凝妝: 화장을 곱게 한다는 뜻이다. 즉 盛粧의 의미이다.
- 3) 翠樓: 화려한 누각이라는 뜻이다.
- 4) 覓封侯: 밖으로 나아가 영화와 부귀를 구하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제후에 책봉되는 일을 말한다.

【감상과 분석】

왕창령은 여성을 시적 화자로 한 閨怨시에 능하다. 또한 이를 七言絶句라는 형식을 통해 잘 드러내었다. 칠언절구는 특히 음악성이 뛰어난 詩體였다. 여인의 情을 표현함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었으므로 ‘輕薄才子’라는 汚名을 입기도 한다. 칠언절구의 명수로서는 단연 이백을 꼽을 수 있는데, 왕창령은 칠언절구에 있어서는 이백과 그 업적을 나란히 한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봉후’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제후에 책봉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병졸의 신분으로 軍功을 세워 제후에 책봉되는 일은 唐代 보다는 漢代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玉階怨(옥계원)

李白

玉階生白露
夜久侵羅襪¹⁾
却²⁾下水精³⁾簾
玲瓏望秋月

【주석】

- 1) 羅襪: 비단 버선이라는 뜻이다.
- 2) 却: 물러나다. 즉 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 3) 水精: 水晶과 같은 뜻이다.

【감상과 분석】

玉階怨을 단순히 규방 여인의 그리움을 다룬 규원시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 궁중 여인의 심리 묘사로서 보기도 한다. 즉 玉階가 의미하는 것이 궁궐 트랙의 계단이라는 것이다. 수정발이라는 이미지도 또한 그러하다. 이백은 궁중 여인들의 行樂에 대해 묘사한 시들을 많이 남겼는데, 위의 시는 그 반대인, 여인들의 悲哀感을 표현한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비교자료

■ 李淑媛. 朝鮮人. 生沒年 미상

조선 16세기의 여인이다. 옥천군수(沃川郡守)를 지낸 이봉(李逢)의 庶女로 태어났다. 이름은 숙원이고, 호는 옥봉이다. 조원(1544~?)의 소실이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절개를 지키려다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녀의 시는 조원의 후손인 조정만(趙正萬, 1656~1793)이 엮은 『가림세고』라는 문중 시문집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또한 이 옥봉의 시는 그 문예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겸익(錢謙益)이 편찬한 『列朝詩集』에 11수가 수록되어 중국에까지 알려진 바 있다.

自述(자술)

李淑媛

近來安否問如何
月到紗窓妾恨多
若使¹⁾夢魂行有跡
門前石路便成沙

【주석】

1) 若使: 만일, 만약에 라는 뜻으로 쓰인다

○ 민중(民衆)의 삶과 시

兵車行¹⁾

병거행

杜甫

車辚辚²⁾ 馬蕭蕭³⁾
行人⁴⁾ 弓箭各在腰
耶娘妻子走相送
塵埃不見咸陽橋⁵⁾
牽衣頓足攔道哭
哭聲直上千雲霄⁶⁾
道旁過者⁷⁾ 問行人
行人但云點行頻⁸⁾
或從十五北防河⁹⁾
便至四十西營田¹⁰⁾
去時里正¹¹⁾ 與裏頭¹²⁾
歸來頭白還戍邊
邊庭流血成海水¹³⁾
武皇開邊意未已¹⁴⁾
君不聞
漢家山東二百州¹⁵⁾
千村萬落生荊杞¹⁶⁾
縱有健婦把鋤犁
禾生隴畝無東西¹⁷⁾
況復秦兵耐苦戰
被驅不異犬與雞

長者18)雖有問
 役夫敢申恨19)
 且如今年冬20)
 未休關西卒21)
 縣官22)急索租
 租稅從何出
 信知生男惡
 反是生女好
 生女猶得嫁比鄰23)
 生男埋沒隨百草
 君不見 青海頭24)
 古來白骨無人收
 新鬼煩冤舊鬼哭
 天陰雨濕聲啾啾25)

【주석】

- 1) 兵車行: <兵車行>은 <麗人行>과 더불어 두보가 창작한 樂府詩이다.
- 2) 麟麟: 수레가 지나가며 내는 소리이다.
- 3) 蕭蕭: 말이 히힉거리며 우는 소리이다.
- 4) 行人: 出征하러 나간 이를 지칭한다.
- 5) 咸陽橋: 咸陽의 서남쪽 渭水가에 있던 다리인데, 長安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다리를 지나야 한다.
- 6) 干雲霄: 하늘을 찌르다. ‘干’은 犯이나 ‘沖’의 의미이다.
- 7) 道旁過者: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여기서는 두보 자신을 가리킨다.
- 8) 點行頻: ‘點行’은 호적이나 名簿에 기재된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것인데, ‘點行頻’은 그러기를 빈번하게 했다는 뜻이다.
- 9) 北防河: 당시 吐蕃이 황하 서쪽 지역을 자주 침범하여 唐왕조는 隴右, 關中, 朔方 지역의 군사들을 河西일대(黃河서쪽지역으로 지금의 甘肅, 寧夏일대)에 주둔시켰다,

防禦를 좀 더 견고히 하였다. 이 지역이 長安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北防河”라 일컬은 것이다.

10) 西營田: 서쪽 변두리 지역의 屯田을 경영하다. 漢代에는 屯田制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시에는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唐代에도 이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 屯田은 서북쪽 일대에 두었으며, 이는 吐蕃의 침범을 막기 위한 방비였다. 때문에 “西營田”이라 칭한 것이다.

11) 里正: 이장이다. 당나라 제도에 百戶를 一里라고 하였으며 里마다 里正을 두었다.

12) 裹頭: 옛날에 出征하는 남자에게 돌려주던 黑色 羅紗로 만든 두건이다. 출정하는 이의 나이가 年少할 경우, 어리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里正이 머리에 두건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13) 流血成海水: 흐르는 피가 바닷물을 이루다. 변방에 수자리 사는 병사들이 전쟁에 희생되어 흘린 피가 바다를 이룰 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天寶 8年 6월에 哥舒翰이 병사 6만 3천명을 이끌고 토번의 石堡城을 공격하였는데, 唐의 군졸들이 수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14) 武皇開邊意未已: 당현종의 변방 개척의 뜻은 끝나지 않았다. 武皇은 본래 武功으로 저명하였던 漢武帝인데, 여기서는 唐玄宗을 지칭한다.

15) 漢家山東二百州: 여기서 漢家は 唐家이며, 山東은 華山 동쪽을 지칭하며 여기서 는 관동과 같다. 《十道四藩志》에는 關東 七道가 대략 二百十七州라 되어 있는데, ‘二百州’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16) 生荊杞: 가시와 杞柳가 생겨나다. ‘荊’은 荊棘이며, ‘杞’는 杞柳인데 잡초를 말한다.

17) 無東西: 밭의 남북을 ‘阡’이라 하고 동서를 ‘陌’이라 한다. ‘無東西’는 즉 阡陌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논밭의 벼싹이 어지럽게 자라 있어 東西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18) 長者: 노인에 대한 존칭인데, 여기서는 행인이 두보를 두고 한 말이다.

19) 敢申恨: 어찌 감히 마음속의 한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반어적 의미로, 가슴속에 쌓인 비분강개가 많다는 뜻이다.

20) 今年冬: 당현종 天寶 10년(751) 겨울을 가리킨다.

21) 未休關西卒: 관서의 병사가 쉰 적이 없다. ‘關西卒’은 函谷關 서쪽의 병사들을 말한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천보 9년(750) 12월에 병사를 징발하여 吐蕃을 공격했다고 한다. 이처럼 천보 9년에도 병사를 징발하였는데, 금년 겨울에도 병사를 징발하

였기 때문에 “未休關西卒”라 한 것이다.

23) 比鄰: 가까운 이웃이다. 唐制에 四家를 ‘鄰’으로 하고, 五家를 ‘保’로 하였다. ‘比’ 또한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이다.

24) 青海頭: 青海湖의 주변으로, 지금의 青海 西寧시 부근이다. 唐 高宗 儀風년간을 기점으로 하여 唐과 吐蕃은 자주 이 지역에서 교전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 兵力의 손실이 상당했다.

25) 啾啾: 보통은 동물들이 작게 우는 소리를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鬼神이 우는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감상과 분석】

이 시는 두보가 창작한 신제악부시(新題樂府詩)로, 대략 天寶 10년(751)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현종은 무공을 세우기 좋아하였는데, 변방을 개척하기 위해 자주 병사를 징집하였다. 천보 8년 6월, 哥舒翰은 吐蕃의 石堡城을 공격하였는데 그 당시 당나라 병사들 수만 명이 전사하였다. 천보 10년 4월에는 劍南節度使 鮮于仲通이 사사로운 원수를 갚고자 南詔에 진격하였는데 크게 패하자 사졸들 6만 명이 전사하였다. 楊國忠이 패전의 실상을 은폐하고자 거짓으로 전공을 알렸다. 또 다시 兩京(長安과 洛陽)과 河南, 河北에서 병사들을 크게 모집하여 南詔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징집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한다. 두보의 <병거행>은 이 당시 느낀 감회로 지어진 것이다. 두보는 이 시를 통해 당현종의 용병과 무력 전쟁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징병당한 백성들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시는 의미상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의 여섯 구가 첫 단락이다. 여기서는 부모.처자와 이별한 뒤 전쟁에 출정하는 처절한 장면과 더불어 전쟁이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불행과 비참함을 묘사하였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문답의 방식을 통해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그려냈고, 통치자의에 대한 諷刺의 뜻도 담아내고자 하였다.

【후대의 평가】

○ 사람이 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귀신이 우는 것으로 그친다.

○ 두보의 <병거행>에서 “長者雖有問 役夫敢申恨”이라는 구절을 심상하게 읽어보면 漫語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겪어본 후에는 비로소 이 말의 진실됨을 알게 된다. 대개 賦斂의 가혹함과 지독한 빈궁의 괴로움은 그것을 방문하고 조사하는 관원과 진술하는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잡혀지는 것도 아니며 간혹 도리어 해를 입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히 다시 말할 기회가 있다하더라도 다른 때에 (관원이) 진노하여 보복하는 禍가 더 심해진다. 이것이 백성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雖’자와 ‘敢’자는 그 사정을 곡진히 한 것이다.

麗人行(여인행)

아름다운 사람들

杜甫

三月三日1)天氣新
長安水邊2)多麗人
態濃意遠淑且真
肌理細膩骨肉勻
繡羅衣裳照暮春
蹙金孔雀銀麒麟3)
頭上何所有
翠爲鬋葉垂鬢脣4)
背後何所見
珠壓腰褱5)穩稱身
就中雲幕6)椒房親7)
賜名大國號與秦8)
紫駝之峰9)出翠釜
水精之盤行素鱗10)
犀筋饜飫久未下11)
鸞刀縷切空紛綸12)
黃門13)飛鞚14)不動塵
御廚絡繹送八珍15)
簫鼓16)哀吟感鬼神
賓從雜遝實要津17)
後來鞍馬何逡巡18)
當軒下馬入錦茵19)
楊花雪落覆白蘋20)

青鳥21)飛去銜紅巾22)

炙手可熱23)勢絕倫

慎莫近前丞相嗔24)

【註釋】

- 1) 三月三日: 고대 수계(修禊:부정함을 씻기 위한 풍속)의 풍속이 음력 3월 上旬 巳日에 거행되었는데, 이날 曲水에 술잔을 흘려보내어 부정함을 씻어냈다.
- 2) 長安水邊: 長安 남쪽에 있던 曲江을 가리킨다.
- 3) 蹙金孔雀銀麒麟: 금실과 은실을 사용하여 비단 치마 위에 수놓은 공작과 기린의 문양을 가리킨다.
- 4) 翠爲鬋葉垂鬋脣: 부녀자들의 틀어 올린 머리 위의 비취 꽃 장식이 귀밑머리[鬋脣]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 翠는 翡翠이다. 鬋葉은 부녀들의 틀어 올린 머리 위에 하는 꽃 장식이다. 鬋脣은 鬋邊과 같고, 귀밑머리라는 뜻이다.
- 5) 珠壓腰褭: 진주가 허리띠위에 묶여 있는데, 밑으로 늘어져 있는 모양이다. 褭은 옷의 뒷자락이다.
- 6) 雲幕: 겹겹이 구름과 안개 같은 발[簾]과 휘장을 가리킨다. 혹은, 화려하게 구름 문양으로 장식한 휘장으로 보기도 한다.
- 7) 椒房親: 椒房에 거처하는 楊貴妃의 친척들, 즉 그의 자매들을 말한다. 漢代 황후가 거처하던 곳인 未央宮은 산초와 진흙을 섞어 벽에 발라 溫暖과 芳香의 효과를 얻었는데, 산초는 열매가 많아 多産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훗날 后妃의 거처를 椒房이라 하였다.
- 8) 賜名大國號與秦: 양귀비가 총애를 얻은 후 天寶 7년(748)에 양귀비의 세 언니들도 봉작을 받아, 큰언니가 한국부인(韓國夫人), 셋째 언니가 궤국부인(虢國夫人), 여덟째 언니가 진국부인(秦國夫人)이 되었다. 여기서는 운을 관계상 두 사람만 들어 그 나머지지까지 말한 것이다.
- 9) 自挾紫駝之峰: 낙타 등의 불룩한 부위를 잘라 구운 고기로서, 진귀한 음식이며 八珍味 중의 하나이다.
- 10) 素鱗: 살결이 흰 생선을 말한다.
- 11) 犀筋饜飫久未下: 실컷 먹고 배가 불러 음식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아 象牙로 만든 젓가락을 오랫동안 음식에 대지 않는다. 무소뿔로 만든 젓가락이다. 筋는箸와 같

다. 饜飫는 배불리 실컷 먹었음을 뜻한다.

12) 鸞刀縷切空紛綸: 鸞刀는 난새 방울 장식이 있는 菜刀이다. 縷切은 주방장이 재료를 썰 때 특히 실처럼 가늘게 썰고 아울러 꽃 장식을 더한 것을 가리킨다. 紛綸은 바쁜 것을 말한다.

13) 黃門: 宦官(太監)의 통칭이다. 환관이 황색으로 칠한 궁궐 대문 안에서 일하므로 黃門이라 부른다.

14) 飛鞚: 鞚은 말 재갈이다. 여기서는 날듯이 빨리 달린다는 뜻이다.

15) 八珍: 여덟 가지의 진귀한 음식. 八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龍肝.鳳髓.豹胎.鯉尾.鴟炙.猩脣.熊掌.酥酪蟬을 팔진이라 하였다.

16) 簫鼓: 피리와 북을 가리킨다. 鼓가 管으로 되어 있는 本도 있다.

17) 賓從雜遝實要津: 賓客과 隨從이 많은데, 기실 모두 지위가 있는 인물들이다. 雜遝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고, 要津은 要職, 높은 지위를 말한다.

18) 後來鞍馬何逡巡: 맨 나중에 한 필의 鞍馬가 오는데 달리는 모습이 참으로 느리고 거들먹거린다. 逡巡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19) 錦茵:茵은 수레 안에 까는 깔개로 ‘入錦茵’은 양귀비의 언니들이 있는 수레 안으로 양국충이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20) 楊花雪落覆白蘋: 버들개지가 눈처럼 흩날려 마름 위를 덮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 당시의 풍경을 묘사한 것인데, 楊國忠과 竊國부인의 通姦을 풍자한 것이라는 說도 있다. “楊花”와 “楊國忠”의 ‘楊’字가 같은 데에서 착상한 說이다. 蘋은 개구리밥 중에 큰 것을 말한다.

21) 青鳥: 神話에서 세 발 달린 새로 西王母의 使者이다. 여기서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2) 紅巾: 부녀자들이 쓰는 붉은 색 두건을 말하는데, 옛날 여자들이 이것으로 자신의 情을 표시하는 信標(信標)로 삼았다.

23) 炙手可熱: 열기에 손을 델 정도이다. 양국충의 세력이 천하를 기울이고 그 기염이 사람을 뽕박함을 말한다.

24) 丞相噉: 丞相은 양국충을 가리킨다. 천보 11년(752)에 양국충이 右丞相을 맡았다. 噉은 성낸다는 뜻인데, 瞋으로 되어 있는 本도 있다. 瞋은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본다는 것이다.

【감상과 분석】

이 시는 天寶 12년(753) 두보가 42세에 지은 작품으로 이때 그는 장안에 있었다. 두보는 이 시를 통하여 唐 玄宗의 총비(寵妃)인 양귀비와 그의 자매들의 사치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비난하고 풍자하였다. 宋나라 樂史의 《楊太眞外傳》에 의하면, 현종이 매년 10월 華清宮에 거둥할 때 양국충과 자매의 사람들이 그를 호종(扈從)하였는데, 한 집이 한 부대를 이루어 한 가지 색의 옷을 입었다. 다섯 집의 대열이 합류하면 그 모습이 마치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빛나는 듯했다. 길에 떨어진 비녀나 신발들이 빛을 발하여 주울 수 있었다. 마침 어떤 사람이 몸을 숙인 채 그 수레를 한 번 흘끗 보았는데, 그 향기가 며칠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그들의 사치스러운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양국충은 꾀국부인과 이웃한 집에 살았는데 약속 없이 수시로 왕래하였다. 혹 나란히 말을 타고 入朝하기도 하였는데 가림막을 치지 않아 도로에서는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가려야만 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풍자한 것과 일치한다.

화려하게 펼쳐진 묘사 속에서 풍자가 극대화되었지만 詩語를 배치한 것이 매우 함축적이고 완곡하기도 하다. 麗人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후에 갑자기 양귀비의 언니인 진국부인, 꾀국부인을 언급하고, 또 수레 앞에 당도하여 말에서 내렸다는 구절 뒤에 승상이 왔음을 언급했으니 모두 시인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후대의 평가】

- 단지 “데일만큼 뜨거운 손이니, 삼가 승상에게 분노를 사지 말라.”는 구절만 쓴 것은 당대 사대부들이 그 무리들을 비판하고 바로잡다가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한 것이다.
- 麗人을 묘사하는데 다만 옷과 음식에 있어서 호사와 사치를 늘어놓는 데 힘을 다하였으니, 이것이 작자의 깊은 뜻이다.
- 하나도 비난하는 말이 없지만 묘사한 곳에는 말마다 비난이요, 하나도 개탄하는 소리가 없지만 구두를 떼는 곳에는 소리마다 개탄이다.
- <여인행>은 전반부에서는 양씨 자매의 사치와 무절제함을 형용하는 데 진력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양국충의 권세가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을 서술하였다. 한 마디도 단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뜻 밖에서 깨닫게 하니, 이 시가 풍자를 잘한 것이다.

○ 변새(邊塞)의 풍광(風光)

唐, 李華 〈弔古戰場文〉의 서두에서

“ 지독한 음기가 엉기어 막히는 겨울이 되면 靑海의 추위는 살을 에운다. 쌓인 눈은 정강이를 덮고, 수염에는 얼음이 뽁뽁 언다. 사나운 새도 등지를 떠나지 않고 정마(征馬) 또한 머뭇거린다. 솜옷도 따뜻하지 않고 발가락은 끊어질 듯 살갗은 찢어진다. 이같이 괴로운 추위는 오랑캐를 기를 북돋아 살기 등등하게 자르고 베어 죽이며, 수송 수레를 약탈하고 군사들을 공격하였다. 도위(都尉)는 항복하고 장군도 죽임을 당했다. 시체는 큰 항구의 언덕을 가득 메웠고 피는 장성굴에 가득 찼도다. 귀한 이나 천한 이나 함께 마른 해골이 되었으니 어찌 이루 말로 다 하랴”

■ 이기(李頎)(690 ~ 751?)

潁陽(지금의 河南省 登封縣) 사람으로, 개원 23년(735)에 진사에 급제한 후 新鄉縣尉를 지내고 오래지 않아 승직하였으나 관직을 그만두고 은거하였다.

그의 邊塞詩 및 음악을 묘사한 시, 인물을 형상화한 장편의 贈別詩 등은 모두 매우 특색 있는 것으로서 격양되고 강개하며 예술적인 감화력이 풍부하다. 그는 五言 古詩와 七言 歌行에 특징이 있었으며, 칠언 율시는 비록 몇 편 남아 있지 않지만 이를 살펴보면 기세가 넘쳐남을 알 수 있다.

교유의 폭이 넓어 王維, 綦毋潛, 高適, 王昌齡 등과 唱和하기도 하였다.

《全唐詩》에 그의 詩 3권이 전한다. 《당시삼백수》에 수록된 작품으로 <古意> <送陳章甫> <琴歌> <聽董大彈胡笳聲兼寄語弄房給事> <聽安萬善吹箏篳篥歌> <古從軍行> <送魏萬之京>이 있다.

古意¹⁾

고의

李頎

男兒事長征
少小幽燕²⁾客

賭勝³⁾馬蹄下
由來輕七尺⁴⁾

殺人莫敢前
鬚如蝟毛磔⁵⁾

黃雲⁶⁾隴底白雪⁷⁾飛
未得報恩不能歸⁸⁾

遼東小婦年十五
慣彈琵琶解歌舞

今爲羌笛⁹⁾出塞聲
使我三軍¹⁰⁾淚如雨

【주석】

1) 古意: 擬古(옛것을 본받다)와 같다.

2) 幽燕: 幽州와 燕나라, 예로부터 이곳에는 많은 협객들이 활동하던 장소이다. 幽州와 并州의 병칭이다. 유주는 지금의 河北省 지역이고, 병주는 지금의 山西省 지역이다. 이 지역의 풍속이 호협을 숭상한다고 하여 ‘호협한 기운’을 의미하기도 한다. 六朝시대 宋

나라 鮑照의 <擬古八首> 세 번째 수에 “유와 병에서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중시하여, 소년들은 말달려 사냥하기를 좋아하네.[幽并重騎射 少年好馳逐]”라는 구절이 있다.

3) 賭勝: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4) 輕七尺: 칠척은 사람의 身長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서는 목숨을 의미한다. ‘輕’은 가벼이 여긴다는 뜻이다.

5) 蝟毛磔: 蝟毛는 고슴도치의 털이며, 磔은 뺏뺏하다는 의미이다.

6) 黃雲: 변방의 누런 모래가 바람에 날려 구름 같다는 말이다.

7) 白雪: 白雲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8) 不能歸: 어떤 본에는 不得歸라 되어있다.

9) 羌笛: 변방의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일종의 관악기다. <風俗通>에 이르길 “한 무제 때 구중이 笛을 만들었고, 또 그 후에 羌笛이란 것이 있게 되었다[漢武帝時丘仲作笛 其後又有羌笛]”라 하였다. 羌笛은 구멍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짜리가 있다.

10) 三軍: 周의 제도로써, 군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후대의 평가】

-淸, 唐汝詢<唐詩解>에서

이는 변방의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파 하는 내용이다. 남자라면 본래 종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져 幽燕의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용맹함을 좋아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지금 이에 눈이 쌓인 모래 언덕에서 군주의 은혜를 갚지 못한 채 변방에 머물면서 어린 아낙이 부는 출새곡 소리를 한번 들으니 三軍은 이로 인해 눈물을 뿌린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마땅히 그 초심을 후회하지 않겠는가.

○ 산수자연(山水自然)의 미(美)

■ 王維(701 ~ 759)

성당시대의 대표적 시인으로, 서화와 음악에도 모두 조예가 깊어 예술계의 거장으로 추앙받는다. 山西省 기현인(祁縣人)으로 字는 마힐(摩詰)이다. 開元 9년(721) 21세에 진사가 되었고, 한 차례의 좌천을 겪은 뒤, 개원 22년(734) 장구령(張九齡)이 집정한 뒤, 右拾遺로 발탁되어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 뒤 장구령이 퇴각하자 정치적 시련을 겪다가 李林甫가 집정한 뒤, 종남산(終南山)의 망천(輞川)에 별장을 마련하고 은거와 관직 생활을 오고 갔다. 천보 14년(755) 안록산의 난을 당하여 반군에게 투옥되었다가 관직을 부여받기도 하였는데, 평정 후 그로 인하여 잠시 좌천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에 中書舍人, 給事中 등을 거쳐 尚書右丞까지 관직이 올라 ‘王右丞’이라 칭해졌으며, 권문세가를 비롯하여 寧王, 薛王 등으로부터 지극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각종 시체에 뛰어났지만 특히 오언율시와 절구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수전원의 한가하고 탈속한 정취를 시에 담으며, 隱居와 불교의 섭리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 詩聖 杜甫, 詩仙 李白과 대비하여 詩佛이라 칭해졌다. 특히 자신이 개척한 남종산수화를 시로 옮겨놓은 듯한 시풍을 창도하여 蘇東坡는 “詩中有畫, 畫中有詩”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세계는 陶淵明, 謝靈運의 시풍을 창조적으로 계승, 함축미와 여운미가 생동하는 시풍을 開導하여, 맹호연, 위응물, 유종원 등과 함께 산수전원시인으로 칭해졌다. 후대에 이들의 시풍을 따르는 유파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예술계의 큰 흐름을 이루었다. 대개 두보, 한유로 이어지는 유파와는 대별되는, 순수예술성을 추구하는 계보를 형성하였는데, 明代 董其昌은 남종산수화의 시조로 추송하였고, 清代 王士禎은 왕유의 시풍을 神韻說의 종지로 삼았다.

輞川¹⁾閑居贈裴秀才迪²⁾(망천한거증배수재적)

王維

寒山³⁾轉蒼翠
秋水日潺湲⁴⁾
倚杖柴門外
臨風聽暮蟬⁵⁾
渡頭餘落日
墟里⁶⁾上孤煙⁷⁾
復置⁸⁾接輿⁹⁾醉
狂歌五柳¹⁰⁾前

【주석】

1) 輞川: 물 이름이다. 지금의 陝西省 藍田縣 終南山 아래 위치해 있다. 宋之問은 여기에 藍田 별장을 지었었는데, 왕유는 만년에 이 별장을 사서 은거 하였다. 이곳에는 竹里館, 柳浪, 辛夷塢 등의 勝景이 많았으며, 왕유는 裴迪와 이곳에서 노닐면서 酬唱하며 즐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이 주고 받은 시는 《왕유승집》 권13에 <輞川集>으로 묶여 있다.

2) 裴秀才迪: 배적은 關中(지금의 섬서성 경내) 사람이다. 처음에 왕유와 종남산에 함께 살다가 후에는 망천의 별장에서 함께 살면서 거문고를 타고 시를 짓고 창수하며 지냈다. 천보연간 이후 촉주자사를 지낸바 있으며 두보, 이기등과도 절친했다.

3) 寒山: 가을에 날씨가 싸늘하게 변하므로 ‘寒山’이라 표현한 것이다. 가을 산이라는 의미이다.

4) 潺湲: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5) 暮蟬: 한선(寒蟬)이라고도 함. 늦가을까지 남아있는 매미를 말한다.

6) 墟里: 村落을 의미한다.

7) 孤煙: 여기서는 저녁 무렵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지칭한 것이다.

8) 置: ‘만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9) 接輿: 春秋時代 楚나라의 隱士였던 陸通의 字가 接輿이다. 여기서는 裴迪를 接輿에 비유해서 쓴 것이다.

10)五柳: 陶淵明을 지칭한다. 도연명의 <五柳先生傳>에 “…宅邊有五柳樹, 因以爲號焉”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위의 3구에서 ‘五柳前’은 五柳先生의 집 앞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王유의 輞川 별장을 도연명의 집에 비유한 것이다.

【감상과 분석】

이 시는 王維가 輞川의 별장에서 閑居할 때, 裴迪이라는 벗을 위해 쓴 시이다. 당시 王유는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미 관직생활에 염증을 느낀 터여서 宋之問의 소유였던 藍田의 별장을 매입하여, 반관반은(半官半隱)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輞川의 아름다운 산수를 묘사하여 시인의 은거생활이 얼마나 한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1,2구는 가을의 경치를 묘사한 사경(寫景)이며, 3,4구는 자신의 정황을 그려낸 사인(寫人)에 해당한다. 5,6구는 배적을 기다리며 시간이 경과하는 모습과, 저녁풍경을 보여주는 寫景에 해당하며, 7,8구는 배적과 만나게 되어 기쁜 심정을 그려낸 寫人이라 할 수 있다.

도연명의 <귀원전거>를 연상시키면서도 ‘閑居之樂’을 사경과 사인을 적절하게 교차시켜 숙련된 정형시의 구법을 구사한 작품이다. <시인옥설>에 “蘇軾은 일찍이 摩詰의 詩를 음미해 보면 詩 속에 그림이 있다. 摩詰의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속에 詩가 있다.[東坡云 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라 하였는데, 이 시야말로 輞川의 저물녘 모습을 精彩롭고 아름답게 그려낸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제2부 우리나라의 시화(詩話)와 한시(漢詩)

○ <어우야담(於于野談)>과 시 이야기

■ 시화란?

詩話라는 명칭이 북송의 歐陽脩(구양수)에서 비롯되었는데, 六一居士라는 그의 字號에 따라 <六一詩話>라 명명한 것이 거의 시초가 된다. 시화에는 시에 관한 해석, 비평, 감상과 제작 동기, 작가의 신변잡기에 이르기까지 시와 관련한 일이면 모두 합해 높은 ‘잡록(雜錄)’ 혹은 ‘잡기(雜記)’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시화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서명의 특징들이 있는데 ‘○○小說’, ‘○○稗說’, ‘○○雜錄’, ‘○○閑話’, ‘○○瑣談’, ‘○○雜記’, ‘○○漫錄’ 등이 그러하다. 어느 한 주제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아니므로, 파한(破閑) 혹은 심심 파적거리의 성격을 지닌다.

■ 柳夢寅과 《어우야담(於于野譚)》

유몽인(1559~1623)의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당(於于堂)·간재(艮齋)·간암(艮庵)·묵호자(默好子) 등이며, 시호는 의정(義貞)이다.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89년 증광문과에 장원하였다. 문장이 뛰어난 그는 1593년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이 되어 왕세자에게 글을 가르쳤다. 황해도관찰사·좌승지·도승지를 거쳐, 1612년(광해군 4) 예조참판·이조참판에 이르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벼슬을 내놓고 전전하다가 역모로 몰려 아들 약(瀾)과 함께 사형되었는데, 정조 때 신원되어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그는 글씨에도 능했으며, 《어우야담》·《어우집》 등과 같은 걸출한 문학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문집 안에는 수록되지 않은 《어우야담》은 우리 문학의 ‘敍事學’에 있어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작품이기도 하다. 필기나 시화를 아우르는 형식으로서, 17세기 전후 전란의 여파로 크게 변화하던 시대상을 관찰하고 비판하고 증언한 기록물이라 말 할 수 있다. 본래 1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으나, 부분적으로만 필사되고 유전되는 상태이다. 그의 죽음이 정치적 박해로 인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한 면이 있다.

<중국 미녀에게 준 서장관의 시>

○ 李穀¹⁾, 以書狀官朝天, 見路傍青樓上, 有四美人隱暎於朱簾之內, 向李穀嚙(손)水. 穀則於橐中, 出白貼扇, 書一絕贈之曰

兩兩佳人弄夕暉
青樓朱箔共依依²⁾
無端一片陽臺雨³⁾
飛灑三韓御使衣

穀回時, 美人備香醪佳肴, 要於路以謝之,

1) 이곡: 본관 한산(韓山). 자 중부(仲父). 호 가정(稼亭). 시호 문효(文孝). 益齋 이제현(李齊賢)의 문인. 1333년(충숙왕2) 원나라 정동성 향시에 수석으로 급제하였다. 정동행중서성 좌우사원외랑(征東行中書省左右司員外郎)이 되었고, 원제(元帝)에게 건의하여 고려에서의 처녀 징발을 중지하게 했다. 1344년 귀국, 이듬해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다. 문장에 뛰어나 원나라에서도 그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을 정도였다. 문집에 《가정집(稼亭集)》이 있다. 목은 이색(牧隱 李穡)이 그의 아들이고 토정 이지함이 그의 8대손이다.

2) 依依: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형용함.

3) 陽臺: 戰國시대 楚나라 宋玉의 《高唐賦》序에 “옛날에 先王(懷王)께서 高唐에 놀다가 피곤하여 낮잠을 잤는데, 꿈에 한 부인인 나타나서 말하길 ‘저는 巫山の 여인으로 고당에 들렀는데 군왕께서 고당에 놀러왔다는 소리를 듣고 枕席을 모시고자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왕이 그녀를 사랑하여주었다. 떠나면서 말하길, ‘저는 무산의 남쪽 높은 언덕의 돌산에 사는데, 다만 아침에 구름이 되었다가 저녁엔 비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陽臺로 내려옵니다.’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때문에 후에 ‘陽臺’는 남녀가 기쁘게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게 되었다. (雲雨之情)

<중국 여인과 文士>

○又有我國一文士，如中原，見路上美妹，坐驢車而往東．士倚門而望，貽兩句詩，索美人聯句曰

心逐紅粧去 (심축홍장거) 마음은 아리따운 아가씨 따라가니

身空獨倚門 (신공독의문) 몸은 텅비어 문에 기대어 있네

美妹駐驢，續之而去，其兩句曰

驢嗔車載重 (여진거재중) 나귀가 짐이 무겁다고 성내더니

添却一人魂 (첨각일인혼) 한 사람의 혼이 더해서였구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절묘한 대구>

○ 李穡¹⁾入中國，應舉捷科，聲名動中國．到一寺，寺僧禮之曰，“聞子東方文章士，爲中國第一科，今何幸見之？”俄而有一人，持餅來饋之．僧遂作一句曰，

僧笑小來僧笑小

使穡對之，僧笑²⁾者餅之別名也．穡倉卒不能對，後期謝而退曰，“異日當更來報之．”後遠遊千里外，見主人把瓶而來，問何物，答曰“客談也．”客談者，酒之別號也．穡大喜，遂對前日之句曰，

客談多至客談多

半歲後，歸而說其僧，僧大喜之曰，“凡得對貴精，晚暮何傷？得一言之工，而不遠千里而來報，此又奇之奇也。”

1) 이색: 본관 한산(韓山). 자 영숙(穎叔). 호 목은(牧隱). 시호 문정(文靖). 이제현(李齊賢)의 문하생.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1341년(충혜왕2) 진사(進士)가 되고, 1348년(충목왕4) 원(元)나라에 가서 국자감(國子監)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했다. 1354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원나라에 가서 회시(會試)에 장원,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급제하여 국사원편수관(國史院編修官) 등을 지내다가 귀국하였다. 이듬해 다시 원나라의 한림원(翰林院)에 등용되었다. 문하에 권근(權近) · 김종직(金宗直) · 변계량(卞季良) 등을 배출, 학문과 정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저서에 《목은시고(牧隱詩藁)》 《목은문고(牧隱文藁)》가 있다.

2) 僧笑: 승소라는 것은 佛家에서 떡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혹은 국수의 별칭이라는 설도 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매일 밥만 먹다가 명절이 되면 떡·국수와 같은 별미를 먹게 되어 만면에 미소를 짓는다는 데서 유래한다.

○ <송계만록(松溪漫錄)>과 시 이야기

<시 잘하는 어우동(於于同)>

○ 昔有一婦人，扶餘懷古詩，

白馬臺¹⁾空經幾歲
落花岩²⁾立過多時
青山若不曾緘默
千古興亡問可知

或云於宇同之所作也。同乃淫婦而能詩如此，所謂有才無行者，此也。

<晉川 강혼(姜渾)과 星州 기생 은대선(銀臺仙)>

○ 姜晉川渾甫¹⁾，鍾情²⁾於星州妓銀臺仙。贈之以三絕，其第二章曰，

姑射³⁾仙姿玉雪肌(고야선자옥설기) 막고야 선녀의 자태 옥같이 흰 피부
曉窓金鏡畫蛾眉(효창금경화아미) 새벽에 거울 앞에서 예쁜 눈썹 그리네
卯酒半酣紅入面(묘주반감홍입면) 아침 술 반쯤 취해 홍조가 얼굴에 들었는데
東風吹鬢綠參差(동풍취빈녹참치) 동풍이 불어오자 까만 귀밑머리가 흩날린다

僕逮見其妓，年踰八十，自言綠參差今變爲白參差矣，泫然泣下。

1) 강혼(姜渾): 1464~1519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호(士浩), 호는 목계(木溪)이다.
아버지는 강인범(姜仁範)이고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이다. 시문(詩文)에 뛰어나

김일손(金駟孫)에 버금갈 정도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명리(名利)를 지나치게 탐했다는 평이 있고, 특히 연산군 말년에 애희(愛姬)의 죽음을 슬퍼하는 왕을 대신하여 궁인애사(宮人哀詞)와 제문(祭文)을 지어 사림(士林)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가담하면서, 그 공으로 晉川君에 봉해졌다. ‘姜晉川渾’이라 칭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후로, 좌승지, 대제학, 공조판서, 한성부 판윤, 우찬성, 판중추부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목계집(木溪集)》이 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2) 鐘情: 사랑을 쏟아준다는 말이다. 매우 아낀다는 뜻.

3) 姑射: 막고야(邈姑射)라는 산이름이다. 《莊子·逍遙遊》에 “막고야산에 신인이 사는데 살결은 빙설과 같고 예쁘고 곱기는 처자와 같다[邈姑射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淖約若處子]”라 하였다.

4) 卯酒: 아침에 마시는 술. 朝酒와 같은 뜻이다.

* 子時: 23-01시, 丑時: 01-03시, 寅時: 03-05시, 卯時: 05시-07시, 辰時: 07-09시
巳時: 09-11시, 午時: 11-13시, 未時: 13-15시, 申時: 15-17시, 酉時: 17시-19시
戌時: 19-21, 亥時: 21-23시

<輓(挽)詩에 대한 일화>

○ 吾友朴枝華, 挽人詩曰

天高九萬騎鯨1)去

歲到三千化鶴回

頗得詩法

1) 騎鯨: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다. 당대의 李白이 황제가 하사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采石江에서 놀때 의기양양해서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떠들다 술에 취하여 물에 들어가 달을 따다고 하다 빠져 죽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러한 일화를

토대로 梅聖俞(매성유)라는 시인은 이백을 추모하며 지은 시에서

采石月下逢謫仙
夜被錦袍坐釣般
醉中愛月懸江底
以手弄月身翻然
不應暴落飢蛟涎
便當騎鯨上青天

2)化鶴: 학으로 변해서 돌아온다는 말이다. 《수신후기》에 이르길, 丁令威는 본래 요동 사람인데 영허산에서 도를 닦고, 뒤에 학으로 변해 요동에 돌아와 城門 華表柱에 앉았더니, 소년들이 활을 당겨 쏘려 했다. 학은 날아서 공중에서 빙빙 돌며 말하기를 “새다, 새다, 정령위다, 집을 떠난지 천년만에 이제야 돌아왔다. 성곽은 옛날 같지만 人民은 다르구나. 어찌하여 신선을 배우지 않고 무덤 많이 즐비한가”하고 하늘로 날아가버렸다고 한다.

〈시재(詩才) 없이 詩를 多作한 趙澄(趙澄)〉

○ 趙斯文澄, 喜作題詠, 鏤板揭壁, 詩賦參半, 人皆譏之. 申斯文義忠, 書于公廨溷室曰,

厠間無拙句
知趙不曾來

申侯以此得名, 人皆曰, 申之十字, 可壓趙之百篇.

○ <추재기이(秋齋紀異)>와 시 이야기

■ 趙秀三과 <紀異>

조수삼(1762~1849)은 18, 19세기 조선 후기 문단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한 여항(閿巷) 문인이다. 號는 秋齋, 字는 芝園이다. 특히 詩才를 타고나, 국내 문인 뿐만이 아니라 淸朝의 유명한 문사들 사이에서도 詩名을 떨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승문원 胥吏 출신으로서, 중년~만년에는 당대 세도가였던 풍양 조씨 일문의 석애 조만영, 운석 조인영 가문과 연계를 맺고 추사 김정희 문하의 제자들 혹은 당대 유명한 사대부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유하였다. 그는 역관(譯官)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6차례나 연행사를 따라 燕京에 드나들며, 청조의 學人들과 교유하고 이 같은 연행의 경험을 詩로써 남겼다. 그는 젊어서부터 자칭 ‘談論’을 즐겨한다고 하였을 정도로, 世事에 관심이 많고 人間事에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그의 관심과 문학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이>이다. <기이>는 총71화로 이루어진 ‘인물의 小傳+漢詩’라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연계성이 없는 개별적 일화와, 그 일화를 7언 절구의 漢詩로서 요약, 형상화 하는 방식이다. 특히, 세상에 알려져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유명한 마이너리티’들의 모습을 정감 있고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문학사상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라 평가되고 있다.

<一枝梅> 일지매

○一枝梅 盜之俠也 每盜貪官汚吏之財自外來者 散施於不能養生送死者 而飛簷走壁 捷若神鬼 被盜之家 固不知何盜也 而乃自作朱標刻一枝梅爲記 盖不欲移怨於他也

一枝梅

血標長記一枝梅

施恤多輸汚吏財

不遇英雄千古事

吳江昔認錦帆來1)

1) 이 구절은 《三國志·吳志·甘寧傳》가운데에서 인용한 典故이다. 추재는 일지매를 錦帆 고사의 감녕에게 건주었다. 錦帆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사람을 좋게 부르는 말이다. 綠林이라는 말과 같다. 본래 중국 오나라 감녕의 고사에서 나왔다. 감녕은 협객인데, 오나라 孫權에게 귀순하고 주유의 휘하에서 조조를 쳤다. 일찍이 살인을 하고 도망하였으나 오군에 협객으로서의 명성이 높았다. 길을 갈 때는 수레와 기마가 행렬을 짓고 배를 타면 쾌속선이 줄이었으며 시종은 비단옷을 걸쳤다. 가는 곳마다 머무를 때는 비단 줄로 배를 묶어두었다고 한다. 조수삼은 일지매를 감녕 같은 협객으로 평가하고, 具眼者를 만나 공을 세우기를 기대하였다. 실상 불우한 영웅의 처지를 애처로워 한 것이다.

<제주의 의로운 기생 만덕이>

○ 萬德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隻眼重瞳. 正宗壬子州大歉1),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萬德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陞2), 一見金剛.” 遂命騎駟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

懷淸臺3) 築乙那4) 鄉

積粟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金剛

1) 大歉: 큰 흉년이다. 歉은 흉년들다는 뜻이다.

2) 天陞: 옥계와 같으며, 임금이 사시는 곳을 의미한다. 혹은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3) 懷淸臺: 원래는 진시황이 과부였던 淸을 자신의 정실로 삼으면서, 그녀를 위해 지어준 누대라고 한다. 《사기·화식열전》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면, 淸은 재화를 운

용하는데 매우 큰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4) 을나(乙那): 탐라를 개국한 시조